

노인단독가구 유형별 주거 공간 사용 특성 - 생활시간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

Characteristics of Space Usage Patterns by Types of Single or Couple Elderly Households - Focused on an Analysis of Time Use Survey -

권오정*
Kwon, Oh-Jung

이용민**
Lee, Yong-Min

하해화***
Ha, Hae-Hwa

신혜인****
Shin, Hye-In

김형우*****
Kim, Hyoung-Wo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space usage patterns by types of elderly households(single or couple). For the study, 74 elders who were older than 65 were selected and their living behaviors at their home during a day (24 hours) were analyzed. Respondents were classified into 6 types based on a combination of their household type, income level and health statu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lderly residents tended to live a well-regulated life, however, each type had unique time and space use pattern. For example, the more the elder residents were healthy, the more they used many rooms. Frail elderly residents spent most of the day in their bedroom. Also, if they had a spouse, each one tended to use a separate private room for his or her daily life whether they shared a bedroom or not.

Keywords : Single or Couple Elderly Households, Space Usage, Time Use, Type of Elderly Household

주요어 : 노인단독가구, 공간사용, 생활시간, 노인가구유형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노인 단독가구의 빠른 증가추세로, 노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위한 주거환경 구축에 대한 관심이 사회전반에 걸쳐 높아졌다. 특히 노화로 인해 생활기능이 저하되고, 대부분의 생활이 주택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인들에게는 그들의 행태적 특성에 맞는 주거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노인 거주자를 지원하는 주거환경 계획을 위해서는 거주자의 행태 및 공간 사용 특성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노인들은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고 공간계획을 하기에는 노인인구의 다양한 특성에 의한 차이 반영이 어렵고 이는 좀 더 효과적인 계획에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중요한 특성들 중 가구 유형, 소득, 건강상태 등과 같은 노인의 행태 및 공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노인가구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로 공간 사용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이해하며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노인들만의 혹은 노인 유형간의 주거공간사용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활시간연구와 같은 실증적인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단독가구를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노인 거주자의 생활시간 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노인유형별 하루 생활패턴 특성과 주거공간에서의 노인유형별 공간 사용 특성을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유형특성에 적합한 노인단독가구의 주거공간 계획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노인단독가구(노인 1인 혹은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비확률표집(제보자 표집: 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여 조사대상을 표집하였고, 자료의 수집은 관찰조사(Observation)와 반구조화 면접법(Semi-structure interview)을 병행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공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자는 조사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특성, 평면, 각 실별 보유가구들을 기록하고, 거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정회원(주저자),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주거환경전공 교수, Ph.D
**정회원(교신저자),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주거환경전공 박사수료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주거환경전공 강사, 이학박사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주거환경전공 박사수료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주거환경전공 석사과정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KRF-2008-313-C01002)의 일부임.

이 논문은 2010년도 한국주거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주택 내에서 일어나는 거주자의 행위들을 관찰하며 각 실 별로 일어나는 주행위들을 기록하였다. 시간적 제약과 사 생활침해에 대한 우려로 24시간 주택 내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연구자가 직접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관찰조사가 실시된 당일 관찰된 내용이 거주자의 일상적인 생활 패턴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관찰조사를 수행한 시간(약 5~10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해서는 면접 조사를 통하여 하루생활행태를 조사하였다. 이때 하루 생활행태 조사내용은 시간, 행위 그리고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 세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1년 중 가장 일상적인 하루(24시간)를 기준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공간사용특성은 각 실의 주 사용용도, 동선분석에 따른 주택 내의 활동 범위, 좌식과 입식가구의 보유 및 사용 정도에 따른 기거양식 등의 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조사대상은 51가구 72명의 단독가구 거주노인으로 조사 기간은 2009년 6월 22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47일에 걸쳐 조사하였다.

III. 생활시간조사

개인들이 24시간 동안 한 모든 행위를 모으는 생활시간조사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 생활시간 자료는 상이한 활동들 사이의 시간배분에 의해 밝혀진 가족의 생활양식과 사회활동의 패턴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통계청, 2009). 우리나라 통계청도 국민들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파악하여 국민의 생활양식과 삶의 질을 측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정책수립이나 학문연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99년부터 5년마다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시간조사는 시간과 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부가적인 정보인 장소나 목적 등의 정보는 조사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주택 내의 공간 사용 특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24시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나는 행위와 행위가 일어나는 주택 내 구체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행위, 공간, 시간의 상호작용과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분석하였으며, 생활시간조사 방법의 활용은 기존의 물리적 환경만을 중심으로 분석된 공간사용특성 연구와 차별화되는 점이다. 본 연구의 생활시간 조사 분석 요소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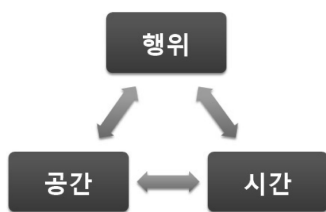


그림 1. 본 연구의 생활시간 조사 분석 요소

본 연구의 생활시간조사를 위해 통계청의 행동분류체계를 참고하고 조사대상자가 노인임을 감안하여, 본 연구의 행동분류표를 재작성하였으며¹⁾, 이를 기준으로 조사대상인의 생활행위를 분류하여 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표 1>.

표 1. 본 연구의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표

개인 유지 생활		가사생활	
수면	수면	식사준비	조리하기
낮잠	낮잠		상차리기
용변	소변보기	설거지	식후정리
	대변보기		설겅이
세면	세수하기	세탁	손빨래하기
	양치질하기		세탁기돌리기
목욕	샤워하기		세탁물넣기
	머리감기		다림질하기
	목욕하기		바느질하기
식사	가족과 식사		청소
	혼자 식사	방정리	
간식	차마시기	집안쓸기	
	간식 먹기	물걸레질하기	
단장	옷갈아입기	청소기 돌리기	
	화장하기	쓰레기 버리기	
여가휴식생활		외부생활	
여가	TV시청	산책	걷기
	라디오청취		산책
	독서하기	외부운동	개인운동
	신문보기		야외스포츠
	컴퓨터 하기	외부종교활동	종교집회/모임
정원/화초가꾸기	그 외 종교활동		
내부운동	실내운동	외부건강관리	병원/보건소가기
내부종교활동	기도하기	교제활동	친구들과 대화
	성경읽기		모임 참여
가족 돌보기 생활			
손자녀돌보기	손자녀돌보기	일	일
배우자 돌보기	배우자 씻기기	사회활동	사회/봉사활동
	배우자 이동돕기	학습활동	학습활동
	배우자 식사돕기	구매	장보기 등

IV. 노인단독가구 유형별 공간 사용 특성

1. 노인단독가구 유형 분류

일반적으로 거주자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대표적인 가구특성 변인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대표성을 고려하여 소득, 가족 주기, 가족 수로 본다(조성희·박수빈, 1998). 하지만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노인단독가구는 가족주기가 자녀가 집을 떠나 독립하여 노인부부만 남는 축소완료기

1) 통계청의 2009 생활시간조사는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 기타 총 9개의 대분류의 행동분류체제로 이루어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택 내의 공간사용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잘 일어나지 않는 행동들을 제외하여 행동분류표를 재작성하였다.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고 홀로 남는 해체기에 해당하므로, 가구구성원수가 1, 2인인지에 따라 가구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노인단독가구의 가구원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거주자의 건강 여부가 주생활행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소득 역시 노인단독가구의 주택유형이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구소득²⁾, 가구원 수, 건강 상태³⁾의 3가지 특성에 따라 노인단독가구를 유형화하였다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근거 외에도 본 연구의 연구자들이 질적 조사를 수행하면서 소득에 따라 주거유형과 규모 등의 차이가 나타나고, 건강상태와 가구원수(가구유형)에 따라 노인의 생활패턴이 달라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본 연구의 조사대상 가구를 유형화 한 결과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조사대상 가구는 총 52가구로, 8개 유형으로 구분한 결과 1유형은 5가구, 2유형은 1가구, 3유형은 8가구, 4유형은 17가구, 5유형은 7가구, 6유형은 0가구, 7유형은 5가구, 8유형은 9가구로 분류되었다. 이 중 6유형에 해당하는 조사대상 가구는 없고, 2유형은 1사례밖에 없어 결과의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최종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킨 후, 한 유형당 5사례 이상의 표집수를 확보하여, 총 51가구를 대상으로 공간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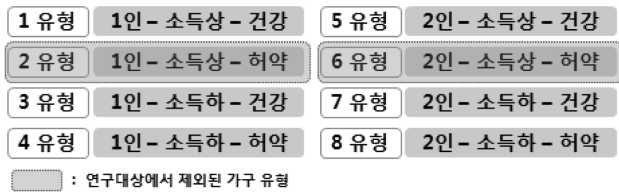


그림 2. 조사대상가구의 유형 분류

2)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7년도 주거실태조사(2008,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의 저소득층과 중/고소득층을 구분하는데 사용한 ‘154만원’을 기준으로 ‘소득상’과 ‘소득하’를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수행 시점(2009년)과 2007 주거실태조사는 2년의 시간차가 있지만, 2008년 발표된 2007 주거실태조사는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조사로, 격년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조사수행시점에서는 최근자료였던 2007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만, 2007 주거실태조사는 노인 단독 가구 뿐만 아니라 노인가구를 포함한 일반가구까지 포함되었고, 일반적으로 노인 단독 가구의 소득이 일반가구의 소득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소득수준 기준을 차용할 때 중소득층을 고소득층에 포함시켜 저소득층과 중/고소득층을 구분하여 저소득층 기준은 ‘소득하’, 중고소득층은 ‘소득상’으로 분류하였다.

3) 건강 상태는 조사대상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였으며, 2인가구에서는 1명이 허약하면 허약가구에 포함시켰다.

4) 노인의 주거환경에 대한 연구에서 상당수(권오정, 2004; 김영주, 2005; 김순미 외, 2004; 이인수, 2000)는 건강과 경제수준이 주거환경 요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으며, 정경희 외(2005)에서도 경제(소득)와 건강을 기준으로 노인인구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노후생활지원책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에서 2007년도에 실시한 노인가구주거실태조사에서도 노인의 세분화된 주거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가구를 가구유형, 소득,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8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주거수요를 분석한 바 있다.

2.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1인가구에 속하는 1, 3, 4유형의 조사대상자는 거의 대부분이 여성이었으며, 2인가구(부부)인 5, 7, 8유형은 남성과 여성을 모두 조사하였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같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의 평균연령은 73.9세로, 1유형(1인-소득상-건강)과 4유형(1인-소득하-허약) 중 75세 이상 노인 비율이 각각 80.0%, 76.5%로 다른 유형에 비해 연령이 높은 노인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고, 5유형(2인-소득상-건강)은 75세 미만의 노인이 많았다(92.9%). 1, 3유형의 노인들은 모두 직업이 없었고, 4, 5, 7유형 중 직업을 가진 노인의 비율은 10%내외였으나, 8유형 노인들 가운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노인은 22.2%로 다른 유형에 비해 직업을 갖고 있는 노인들의 비율이 높았다<표 2>.

표 2.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n=72)

항목	구분	1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7유형		8유형	
		n	%	n	%	n	%	n	%	n	%	n	%
성별	여성	5	100.0	7	87.5	17	100.0	7	50.0	5	50.0	9	50.0
	남성	0	0	1	12.5	0	0	7	50.0	5	50.0	9	50.0
	소 계	5	100.0	8	100.0	17	100.0	14	100.0	10	100.0	18	100.0
연령 (73.9)	75세 미만	4	80.0	4	50.0	4	23.5	13	92.9	4	40.0	7	38.9
	75세 이상	1	20.0	4	50.0	13	76.5	1	7.1	6	60.0	11	61.1
	소 계	5	100.0	8	100.0	17	100.0	14	100.0	10	100.0	18	100.0
직업 유무	직업 유	0	0	0	0	2	11.8	1	7.1	1	10.0	4	22.2
	직업 무	5	100.0	8	100.0	15	88.2	13	92.9	9	90.0	14	77.8
	소 계	5	100.0	8	100.0	17	100.0	7	100.0	5	100.0	9	100.0

3. 조사대상 노인단독가구 유형별 주거 특성

유형별 조사대상 가구의 주거특성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⁵⁾. 가구유형에 관계없이 다세대/연립/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주택소유형태는 모든 가구유형에서 자가인 경우가 많았으나, 4유형(1인-소득하-허약)에서는 전월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주택규모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은 1유형과 5유형에서 30평대와 40평대 이상의 큰 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형별 주거특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1유형(1인-소득상-건강)은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의 주인세대에 거주하면서 임대수익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이 대부분이었다. 1유형 주택 규모의 평균은 약 114 m²로 30평대에 침실 3개, 거실과 부엌이 각각 1개, 욕실 2개로 구성된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많았다.

3유형(1인-소득하-건강)은 다세대, 다가구 또는 연립주택 유형의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거주기간은 대부분 10년 이상이였다. 3유형 가구의 평균 주택규모는 82.69 m²로 20평대에 거주하는 노인이 50%, 10평대가 약 38%이었다. 침실 2개, 욕실 1

5) 유형별 조사대상 가구의 주거특성은 가구단위로 정리하였기 때문에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총 조사대상수 n=72와 다름.

개, 부엌 및 거실 1개(LDK) 또는 부엌과 거실이 공간적으로 분리된 형태(LD-K)로 구성된 평면이 3유형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였으며 각각 4가구씩 있었다.

4유형(1인-소득하-허약)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에 전/월세로 사는 경우가 많았고, 한 주택에 오래 살기보다는 자주 이사를 다니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인 가구가 많았다. 4유형 가구의 평균 주택규모는 약 69 m²으로 10평대에 거주하는 노인이 많았고, 대부분이 침실 2개, 욕실 1개, 부엌 및 거실 1개로 구성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5유형(2인-소득상-건강)에 해당하는 노인가구는 대부분 다가구, 연립, 다세대에 살고 있으며, 집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 대체로 10년 미만의 노후도가 낮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30평대 이상의 규모를 가진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공간구성은 침실 3-4개, 욕실1-2개, 부엌 및 식당 1개, 거실1개, 베란다 1-2개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 3. 유형별 주거 특성 (n=51)

항목	구분	1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7유형		8유형	
		n	%	n	%	n	%	n	%	n	%	n	%
주택 유형	아파트	0	0	1	12.5	3	17.6	1	14.3	2	40.0	2	22.2
	다세대/연립/다가구*	4	80.0	5	62.5	11	64.7	4	57.1	2	40.0	5	55.6
	단독주택	1	20.0	2	25.0	3	17.6	2	28.6	1	20.0	2	22.2
	소 계	5	100.0	8	100.0	17	100.0	7	100.0	5	100.0	9	100.0
소유 형태	자가	4	80.0	6	75.0	7	41.2	7	100.0	3	60.0	7	77.8
	전/월세	1	20.0	2	25.0	10	58.8	0	0	2	40.0	2	22.2
	소 계	5	100.0	8	100.0	17	100.0	7	100.0	5	100.0	9	100.0
거주 기간	10년 미만	1	20.0	2	25.0	9	52.9	3	42.9	4	80.0	2	22.2
	10-20년 미만	3	60.0	5	62.5	4	23.5	2	28.6	0	0	5	55.5
	20년 이상	1	20.0	1	12.5	4	23.5	2	28.6	1	20.0	2	22.2
	소 계	5	100.0	8	100.0	17	100.0	7	100.0	5	100.0	9	100.0
경과 년수	10년 미만	1	20.0	2	25.0	2	11.8	3	42.9	2	40.0	0	0
	10-20년 미만	3	60.0	4	50.0	8	47.1	1	14.3	0	0	6	66.6
	20년 이상	1	20.0	2	25.0	7	41.1	3	42.9	3	60.0	3	33.3
	소 계	5	100.0	8	100.0	17	100.0	7	100.0	5	100.0	9	100.0
주택 규모	10평 미만	0	0	0	0	1	5.9	0	0	0	0	1	11.1
	10평대	1	20.0	3	37.5	10	58.8	0	0	0	0	4	44.4
	20평대	1	20.0	4	50.0	3	17.6	1	14.3	2	40.0	4	44.4
	30평대	2	40.0	0	0	2	11.8	3	42.9	2	40.0	0	0
	40평 이상	1	20.0	1	12.5	1	5.9	3	42.9	1	20.0	0	0
	소 계	5	100.0	8	100.0	17	100.0	7	100.0	5	100.0	9	100.0
	평균(m ²)	114.40		82.69		68.65		117.57		99.20		59.89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에 속하나 주택 내의 생활패턴은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과 비슷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다세대/연립/다가구'를 하나의 주택유형으로 정하여 분석하였음.

7유형(2인-소득하-건강)에 속하는 노인가구는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었으며, 거주기간은 10년 미만으로 비교적 짧지만 건축 경과년수는 20년 이상인 비교적 노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주택규모는 평균 99 m²정도로 대부분 20-30평대에 거주하

며 침실3개, 욕실1-2개, 부엌 및 식당 1개, 거실1개로 구성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8유형(2인-소득하-허약)은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을 자가 소유하여 사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거주기간은 대부분 10년 이상이었다. 평균 주택규모는 약 60 m²로 10평대와 20평대에 거주하는 노인이 대부분이었다. 침실 2개, 욕실 1개, 부엌 및 거실 1개로 구성된 평면이 8유형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였으며 부엌과 거실이 공간적으로 분리된 형태도 4가구 있었다.

4. 노인단독가구 유형별 생활시간 및 주거공간사용 조사 분석

본 연구에서 분류한 노인단독가구 유형별로 해당 조사대상 노인들의 하루 생활시간사용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시간과 공간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각 유형별로 모든 조사대상자 가구의 생활시간사용 특징을 종합하여 1시간을 기준단위로 작성하였다. 시간대별 일어나는 행위와 머무는 공간에 대한 내용을 1시간 기준으로 비교하여, 가장 많은 조사대상자가 행한 행위와 공간을 조합하여 정리하였다. 각 유형에 해당하는 모든 조사대상자의 생활시간 사용 흐름과 패턴이 동일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취향이나 구체적인 건강상태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는 노인들 사이에서 비슷한 패턴들이 많이 추출되었기 때문에 종합하여 분석이 가능하였다.

1) 노인단독가구 유형별 생활시간 사용패턴 분석

1유형(1인-소득상-건강)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건강한 집단이기 때문에 주택 내에서 운동, 컴퓨터, 취미활동 등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는 노인들이 많았다. 외부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가사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비교적 적고, 자유시간이 많아 여가활동으로 보내는 시간도 많았다. 주택에 머무는 시간도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3유형(1인-소득하-건강)은 건강하며 수발할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외부활동에 비교적 많은 비중을 할애하였다. 3유형은 외부활동 중 종교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었고,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는 운동(기구 이용, 외부 운동프로그램 이용 등)보다는 주로 집근처를 걷는 운동을 주로 하고 있었다. 3유형에 속하는 노인가구는 1인 가구이기 때문에 가사량이 많지 않아 소량의 일거리가 생겼을 때 그때그때 해결하는 패턴을 보였다. 설거지는 식후 바로하고, 빨래거리가 생기면 욕실에서 손빨래로 해결하였다. 집안에서의 가사활동에 있어서 기기를 사용하기 보다는 비용절약 혹은 건강관리 차원에서 직접 해결하고 있었다.

4유형(1인-소득하-허약)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허약하여 신체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집단이다. 따라서 4유형의 노인들은 외부활동 시간보다는 주택 내부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외부활동의 경우도 본인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서

표 4. 유형별 생활시간·장소 조사결과

시간		3	6	9	12	15	18	21	24
1유형 (1인-소득상-건강)	침실1	수면							수면
	침실2								
	욕실			세면					목욕
	부엌			식사		식사		식사	
	거실					TV시청, 컴퓨터, 낮잠		운동, TV시청	
	외부		운동, 산책	교제 활동			장보기		
3유형 (1인-소득하-건강)	침실1	수면		청소	TV시청			TV시청	수면
	침실2					TV시청			
	욕실		세면				빨래	세면	
	부엌			식사		식사		식사	
	거실		청소						
	외부			종교활동, 사회활동			산책, 운동		
4유형 (1인-소득하-허약)	침실1	수면		휴식	TV시청, 휴식	간식 낮잠		식사	TV시청
	침실2							목욕	
	욕실			세면					
	부엌			식사					
	거실								
	외부						병원가기, 교제활동		
5유형 (2인-소득상-건강)	할아버지	수면							수면
	할머니	수면							수면
	할아버지		세면		목욕			세면	
	할머니			목욕				세면	
	할아버지			식사				식사	
	할머니			식사				식사	
7유형 (2인-소득하-건강)	할아버지	수면		TV시청	TV시청		TV시청, 휴식	TV시청	수면
	할머니	수면			청소	TV시청	TV시청, 라디오, 휴식		수면
	할아버지		세면					세면	
	할머니			청소				세면	
	할아버지			식사		식사		식사	
	할머니			식사		식사		식사	
8유형 (2인-소득하-허약)	할아버지	수면			TV시청, 휴식		TV시청, 낮잠, 휴식		수면
	할머니	수면				휴식, 독서			수면
	할아버지		목욕					세면	
	할머니			목욕				세면	
	할아버지			식사		식사		식사	
	할머니			식사		식사		식사	
개인유지생활	수면, 낮잠, 용변, 세면, 목욕, 식사, 간식, 단장								
여가휴식생활	여가(TV시청, 라디오청취, 독서하기, 신문보기, 컴퓨터하기, 정원/화조가꾸기), 내부운동, 내부종교활동								
가사생활	식사준비, 설거지, 세탁, 청소								
가족돌보기생활	손자녀돌보기, 배우자돌보기('배우자'로 표기함.)								
외부생활	산책, 외부운동, 외부종교활동, 외부건강관리, 교제활동, 일, 사회활동, 학습활동, 구매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외출 빈도가 극히 적었으며 외출활동도 병원가기가 중심활동이었다. 주택내부의 여가 활동은 TV시청이나 휴식 등의 정적인 활동이 많았다.

5유형(2인-소득상-건강)은 대체로 일반적인 젊은 부부들과 가장 비슷한 생활행태를 보이는 유형이었다. 5유형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하는 활동이 많았고, 특히 운동 및 외부활동은 대체로 같이 하고 있었다. 집내부의 생활행태인 식사, TV시청, 대화, 취침 등도 대부분 부부가 함께 하고 있었다. 특히 5유형의 할아버지는 낮 시간의 대부분을 외부에서 보내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TV를 시청하는 생활패턴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택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짧았다. 5유형 할머니의 생활패턴은 할아버지와 비슷하였지만, 할아버지가 외부생활을 하는 동안 주택 내에서 청소,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활동을 하는 특징을 보였다.

7유형(2인-소득하-건강)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체로 건강하기 때문에 부부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외부활동 및 자녀와의 교류가 비교적 많아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는 손자녀를 돌봐 주고 있었다. 5유형에 비하면, 부부가 함께 같은 행위를 하며 보내는 시간이 적었으며, 5유형에 비해 주택 내에서 TV시청이나 휴식을 취하면서 보내는 내부활동의 비중이 높았다. 7유형의 할머니는 가사활동을 하며 보내는 시간이 다른 유형에 비해 많았다.

8유형(2인-소득하-허약)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이 허약한 배우자의 생활을 보조하고 있는 생활패턴을 갖고 있었다. 허약한 노인은 하루의 대부분을 집안에만 머무르고 배우자의 동행 하에 집 근처로 가벼운 산책을 나가는 정도의 외부활동을 하고 있었다. 8유형의 가구구성원 중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은 배우자를 수발하며, 외부에서 일하기, 시장보기, 종교 활동, 교제활동 등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건강한 배우자가 부엌에서 식사준비를 마치면 허약한 배우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식사 후 허약 노인이 침실로 돌아가면 건강한 배우자가 식후정리를 마치고 본인의 침실로 돌아가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었다.

2) 노인단독가구 유형별 주거공간 사용패턴 분석

1유형(1인-소득상-건강)은 혼자 살기에 비교적 넓은 공간을 소유하고 있지만, 주택의 특정 공간만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실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1유형 가구의 각 실별 사용용도를 살펴보면, 침실1(주침실)은 취침이나 종교 활동을 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침실2나 침실3은 운동기구를 놓고 운동을 하거나, 자가 치료기를 사용하여 치료를 하는 등의 건강관리 활동을 하거나 화분을 보관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건강하고 기기 사용에 적극적인 1유형은 TV시청, 신문보기, 컴퓨터 사용, 운동기구를 활용한 운동 등의 기기를 활용한 여가 활동을 즐기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주로 거실에서 이

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거실에서 여가활동을 하며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외부에서는 운동을 하거나 모임을 갖고, 텃밭을 가꾸는 등의 활동을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이 하고 있었다. 또한 식사행위는 부엌의 식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다른 유형에 비해 입식기구의 사용율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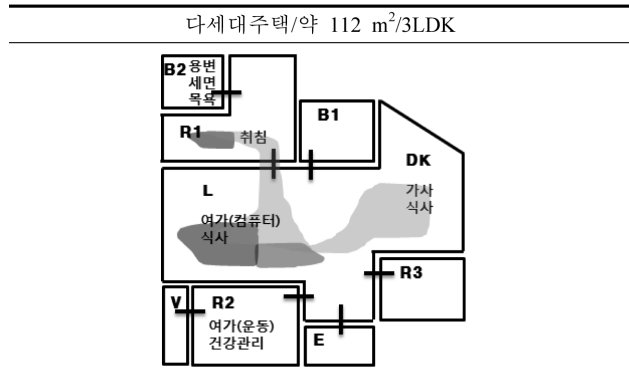


그림 3. 1유형의 대표적 공간이용 사례⁶⁾

주택 내에서 3유형(1인-소득하-건강) 공간이동 패턴을 보면, 대부분의 노인이 취침을 하는 침실1에서 TV시청이나 독서와 같은 여가활동, 종교 활동, 외출준비, 자가 치료, 낮잠, 아무것도 안하고 쉬는 등의 행위가 일어났다. 그 외의 침실2 또는 침실3에서는 TV시청의 여가활동 및 강의 정도만 일어났다. 식사/간식 및 약먹기 행위는 주로 부엌에서 일어났으며, 침실1에서 식사하는 경우도 2가구 있었다. 식탁을 사용하지 않고 낮은 상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5가구)이었으며, 침실에 침대가 없거나 있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한 5가구로 과반수 이상이였다. 이를 통해 3유형 노인들이 주로 좌식위주의 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거실에서는 특히 기도 또는 성경읽기와 같은 종교 활동, 여가(TV시청), 외출준비(화장하기)등의 행위가 나타났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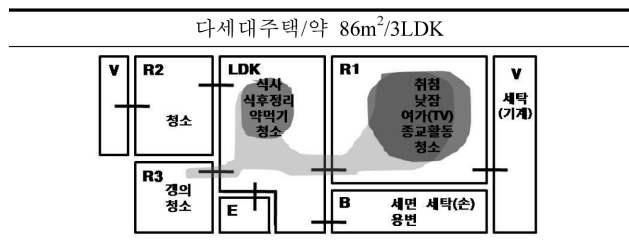


그림 4. 3유형의 대표적 공간이용 사례

4유형(1인-소득하-허약) 노인들은 본인이 취침을 하는 침실1에서 다양한 수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취침행위 뿐만

6) 유형별 공간이용을 보여주는 평면(그림 3-8)에 표시된 음영이 있는 부분은 조사대상자가 활동하는 공간의 범위를 나타내며, 색이 진할수록 머무는 시간이 많음을 의미한다.

아니라 식사, TV시청, 라디오 듣기 등의 여가활동, 성경 읽기 등의 종교 활동 등을 하고 있었다. 침실1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침실2는 옷방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수납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신의 활동 범위를 줄이고 자주 쓰는 물건은 침실1에 보관하면서 생활하고, 주택 전체의 공간을 골고루 사용하기보다는 침실1과 욕실, 부엌 등의 공간만을 주로 사용하여 활동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았다. 그리고 4유형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대부분의 평면은 LDK형으로 거실과 부엌의 구분이 모호하고,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거실은 매개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고, 부엌에 식탁은 있어도 식탁에 앉아서 식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가구의 실사용 특성과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4유형 가구의 노인 중 침대와 입식식탁, 의자 등의 입식가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가구는 5가구(29%)밖에 조사되지 않아 4유형 노인들의 대부분이 좌식생활을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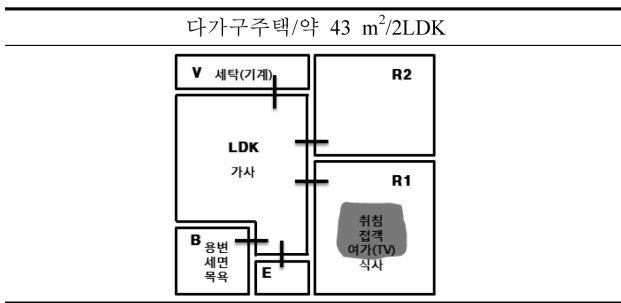


그림 5. 4유형의 대표적 공간이용 사례

5유형(2인-소득상-건강)은 주택 내부 공간에 여유가 있어 부부가 각자 프라이버시가 유지될 수 있는 영역을 두어 개인적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주택 내 공간사용 특성을 보면 침실1에서는 주로 수면만 취하고, 거실에서는 TV시청 및 접객, 부엌 및 식당에서는 식사 및 부부 대화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다. 그 외의 침실 2, 3 공간은 서재 및 컴퓨터실 등 여가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가사작업 공간 중 세탁실은 욕실과 베란다, 다용도실 등 다양하게 나타났고 부엌의 연장공간으로 베란다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김치냉장고 또는 가스레인지, 전자렌지, 정수기 등 부엌의 부수적인 수납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주택 평면은 대부분 3L-DK, 3LDK형이었고 각 공간은 주 행위에 맞게 구성 되어 공간사용에 불편사항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대체로 소득이 높고 건강한 5유형에 속하는 노인의 주택은 침대, 소파, 식탁의자, 화장대 등 대부분의 가구가 입식가구로 이루어져 입식생활을 하고 있었고, 다양한 전자제품(예: 전자레인지, 컴퓨터, 청소기 등)의 사용에도 적극적이었다.

7유형(2인-소득하-건강)의 주택 내 공간사용 특징을 살펴보면, 부부의 기상 및 취침시간이 같은 경우 노인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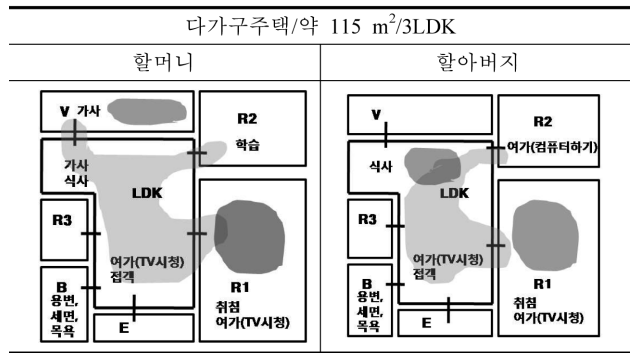


그림 6. 5유형의 대표적 공간이용 사례

가 같이 한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고, 다른 경우에는 침실1과 침실2를 각각 나누어 사용하였는데 대체로 침실에서는 취침행위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주로 TV시청과 손자녀돌보기, 여가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부엌 및 식당공간은 가사작업과 부부가 함께 식사하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각 공간은 대체로 그 기능에 맞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침대를 사용하는 가구보다는 요를 이용하는 가구가 대부분이었고, 상보다는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소파와 바닥에 앉는 행위가 함께 이루어지는 등 좌식과 입식생활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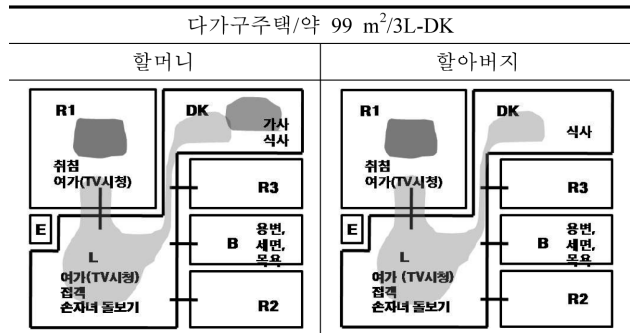


그림 7. 7유형의 대표적 공간이용 사례

8유형(2인-소득하-허약)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주택 내에서 부부의 생활공간은 분리되어 있었다. 침실이 2개인 경우 각각의 침실을 사용하며, 침실이 하나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허약한 노인은 침대를 사용하며, 건강한 노인은 바닥에서 좌식생활을 하고 있었다. 침실이 3개인 경우에는 1개의 침실은 비워두거나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각자의 침실을 중심으로 수면, 낮잠, 건강관리, 종교생활, TV시청 등의 개별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다가, 식사를 할 경우에는 주로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였다. 그러나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매우 나쁜 경우에는 침실1에서 식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8유형은 배우자 수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허약노인의 일상생활수행이나 이동성을 돕기 위해 입식위주의 생활을 많이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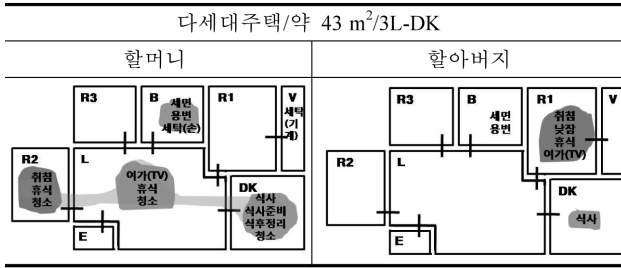


그림 8. 8유형의 대표적 공간이용 사례

3) 노인단독가구의 유형별 생활패턴 및 주거공간사용특성 종합 분석

모든 유형의 노인단독가구들은 비슷한 하루일과 패턴을 보였으며, 대부분의 노인단독가구는 동일한 시간대에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규칙적인 생활패턴을 유지하고 있었다. 대부분 노인들은 기상 후, 외부에서 운동을 하거나 주택 내에서 TV시청을 하고, 아침식사를 한다. 그 후 건강한 노인들은 주택 외부에 나가지만, 허약한 노인들은 주로 주택 내에서 시간을 보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TV를

시청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건강하고 소득이 높은 노인들은 TV시청 외 비교적 다양한 여가활동을 주택내외 부에서 하고 있었다. 1인 가구보다는 2인 가구 여성노인들의 가사활동 참여시간이 많았다.

이처럼 유형별 노인단독가구 생활시간 사용패턴의 큰 흐름은 비슷하지만, 소득에 따라 주택유형과 크기가 달라지고, 본인의 건강상태와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활동범위의 제약이 생기면서 공간사용패턴에 차이를 보였다. 유형별 생활시간 및 공간사용 패턴을 종합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건강, 소득수준, 가구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노인단독가구를 유형화하였고 각각의 가구 유형의 생활시간 사용패턴과 주거 공간 사용패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 노인단독가구는 가구유형에 관계없이 다세대/연립/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자가 주택에 사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대부분 조사대

표 5. 유형별 생활시간 사용패턴과 주거공간사용패턴 비교

특징	유형	1유형 [1인-소득상-건강]	3유형 [1인-소득하-건강]	4유형 [1인-소득하-허약]	5유형 [2인-소득상-건강]	7유형 [2인-소득하-건강]	8유형 [2인-소득하-허약]
주택 규모	주택 규모	약 114 m ² 30평형대에 거주	약 83 m ² 10-20평형대 거주	약 69 m ² 10평형대에 거주	약 117 m ² 30평형대 이상 거주	약 99 m ² 20-30평형대 거주	약 60 m ² 10-20평형대 거주
공간 구성	공간 구성	침실 3, 거실 1, 부엌 1, 욕실 2	침실 2, 욕실 1, 부엌 및 거실 (LDK)	침실 2, 욕실 1, 부엌 및 거실 (LDK)	침실 3-4, 욕실 1-2, 부엌·식당 1, 거실 1	침실 3, 부엌·식당 1, 욕실 1-2, 거실 1	침실 2, 욕실 1, 부엌 및 거실 (LDK)
생활 시간 사용 패턴	생활 시간 사용 패턴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건강하기 때문에 주택 내에서 비교적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고, 외부활동도 빈번하게 일어남. 가사생활에 할애하는 비중이 적고, 자유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가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	건강하기 때문에 외부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여력이 많지 않으므로, 종교 활동이나 집 근처 산책 및 걷기 등의 외부활동 비중이 높음. 주택 내부에서는 주로 TV시청을 하면서 여가시간을 보냄.	신체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이 어려우므로, 주택 내부에서 지내는 시간이 매우 많음. 외부활동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근처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주택 내부에서의 여가활동은 TV시청, 휴식 등의 정적인 활동이 주를 이룸.	일반적인 젊은 부부들과 가장 비슷한 생활패턴을 보임. 부부가 함께 하는 활동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으며, 특히 운동 등의 외부활동을 함께 하고 있음. 주택 내부에서도 식사, TV활동, 대화, 취침 등의 활동도 부부가 함께하고 있음.	부부가 비교적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외부활동 및 자녀와의 교류가 비교적 많이 일어나며,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는 손자녀를 돌봐 주고 있음. 부부 중 할머니의 가사생활도 보내는 시간이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음.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이 허약한 배우자의 생활을 보조함. 허약 노인은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머무르며, TV시청을 많이 함. 반면,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은 외부에서 많은 생활을 하며, 가정용 이끄는 역할을 함.
주거 공간 사용 패턴	주 사용 공간	혼자 살기에 비교적 넓은 공간을 소유하고 있지만, 특정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실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침실 1을 중심으로 생활하나, 거실과 부엌도 자주 이용함.	침실1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필요시 욕실, 부엌을 이용함. 활동 범위가 매우 작음.	공간면적이 여유 있기 때문에 부부 각각의 영역을 두고 생활함. 주로 거실과 침실은 공동으로 자주 사용함.	기상 및 취침시간이 같은 경우, 부부가 함께 침실을 공유하며, 다른 경우에는 침실을 나누어 사용함. 주로 거실, 침실1을 이용함.	주택 내 부부 생활공간이 분리되어 있음. 침실이 2개인 경우, 각각의 침실을 사용함. 허약한 노인의 활동범위가 좁음.
	공간별 용도	침실1(주침실)은 취침이나 종교 활동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침실 2나 3은 운동기구를 놓고 운동을 하거나, 자기치료를 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거실에서 여가활동을 하며 지내는 시간이 많음.	취침을 하는 침실 1에서 TV시청이나 독서와 같은 여가활동, 종교 활동, 휴식 등의 행위가 일어나고 침실2 또는 3에서는 TV시청의 여가활동, 갱의 정도의 활동만 일어남.	침실 1에서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고, 취침행위뿐만 아니라 식사나 TV시청 등의 여가활동, 종교 활동을 하고 침실에서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임. 반면에 침실 2는 옷 등을 수납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침실1에서는 주로 취침 행위만 이루어지고, 거실에서는 TV시청, 부엌 및 식당에서는 식사 및 부부 대화 행위가 일어나며, 침실2 또는 3은 서재 및 컴퓨터실 등의 여가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됨.	대체로 침실에서는 수면 행위만 이루어짐. 거실에서는 TV시청과 손자녀를 돌보기, 여가행위가 일어나며, 부엌 및 식당공간은 가사활동과 식사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음	각자의 침실을 중심으로 취침, 건강관리, 종교생활, TV시청 등의 개별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다가 식사를 할 경우, 같은 공간에서 식사행위를 함.
	기거 양식	식사행위는 부엌의 식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입식가구의 사용률이 비교적 높음.	식탁을 사용하지 않고 침실에 침대가 없거나 있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많음. 주로 좌식생활을 함.	침대와 식탁, 의자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좌식생활을 유지하며 생활함.	침대, 소파, 식탁, 화장대 등 대부분의 가구가 입식가구이며, 대부분 입식생활을 함.	침대보다는 요를 사용하고,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소파와 바닥에 앉는 행위가 함께 이루어지는 등 좌식과 입식생활을 병행함.	배우자 수발이나 허약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을 위해 입식위주의 생활을 하고 있음.

상자 노인들은 직업이 없었으며, 대체로 허약한 노인들의 연령이 높았다.

노인단독가구는 통상적으로 매일 동일한 시간대에 기상하거나 취침하는 등 거의 유사한 생활시간 사용패턴을 반복하는 규칙적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공간사용 및 생활행태는 사용하는 실의 용도, 활동범위, 이동 동선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1유형(1인-소득상-건강), 3유형(1인-소득하-건강)과 같이 건강한 1인가구에 속하는 노인들은 전체 공간을 골고루 사용하는 편이나, 소득에 따른 차이로 인해 여가생활 종류가 다르고, 주택 규모차이로 인한 활동영역의 차이가 있었다.

4유형(1인-소득하-허약), 8유형(2인-소득하-허약)처럼 허약한 노인을 포함한 가구는 공통적으로 특정 실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주택 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4유형(1인-소득하-허약)은 침실1에서 취침, 여가, 식사 등의 다양한 행위를 하고 있었으며, 8유형(2인-소득하-허약)의 가구 구성원 중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은 주택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간 전체를 사용하는 한편, 허약한 노인은 침실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배우자간에 침실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4유형(1인-소득하-허약)과 8유형(2인-소득하-허약)의 노인들은 외출횟수가 적고, 활동범위가 축소되는데다가 여가활동도 TV시청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생활패턴을 보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단독가구의 사회적 교류 증진과 여가활동 보급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5유형(2인-소득상-건강)과 7유형(2인-소득하-건강)은 건강한 2인 가구 유형으로 전체적으로 여러 공간을 같이 골고루 사용하고 있었다. 7유형(2인-소득하-건강)은 부부간에 거의 동일한 생활패턴을 보이고, 그에 따라 공간사용 특성도 비슷하고, 침실도 공유하고 있었다. 5유형(2인-소득상-건강)도 마찬가지로 부부간의 취침을 함께하며 거실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주택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부부간의 공간 사용 범위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유형에 따라 좌식/입식생활에 대한 조사결과도 다르게 나타났다. 1유형(1인-소득상-건강)과 5유형(2인-소득상-건강)처럼 건강하고 소득이 높은 유형의 노인들은 입식가구(침대, 식탁, 입식 화장대 등)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3유형(1인-소득하-건강)과 4유형(1인-소득하-허약)처럼 소득이 낮은 1인가구는 좌식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반면에 8유형(2인-소득하-허약)은 비교적 건강한 노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의 일상생활을 돕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은 노인들이 사용하기 편하고, 수발하기 편리한 입식가구 위주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즉, 1유형(1인-소득상-건강)과 3유형(1인-소득하-허약)처럼 건강한 1인가구를 위해서는 기능이 분화되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4유형과 같이 허약한 1인가구에게는 원룸형식의 집약된 기

능을 가진 주택이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5, 7, 8유형과 같은 2인가구를 위해서는 부부의 각자 영역을 위해 2개 이상의 침실을 계획하고, 거실과 부엌 및 식당은 가구원의 교류를 위해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8유형(2인-소득하-허약)과 같이 허약한 배우자를 수발해야하는 경우는 수발하기에 편하도록 각자의 침실을 가까이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본 연구는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노인단독가구 거주자의 가장 일상적인 하루를 기준으로 관찰조사를 실시한 후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하루 생활시간 사용에 관하여 조사하였지만, 본 조사의 시작 시점이 여름이었기 때문에 겨울에 비해 외부활동의 횟수와 시간이 많거나, 손빨래나 샤워를 자주하는 등의 계절적인 요인이 반영된 행위특성들이 조사되었다는 점을 밝힌다. 향후 계절적 특성이나 시간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연 2회 이상의 세부적인 생활시간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 단독가구의 노화 및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생활 패턴에 맞는 공간구성, 크기 및 배치, 디자인 등에서 좀 더 세분화된 노인요구에 대응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보들은 노인들의 주거공간 내 행동의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시나리오기반 공간구축 연구 및 노인단독가구를 위한 IT기술 적용 주거환경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 (2008). 2007년 노인가구 주거실태조사. 안양: 국토연구원.
2. 권오정 (2004). 반의존 노인용 시설주거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미국 버지니아주 농촌지역 우수 노인생활보조주택 관리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6), 27-45.
3. 김순미·홍성희·김혜연·김성희 (2004). 봉급자의 은퇴설계: 노인부양으로서 유료노인시설 선호 및 요구도. 대한가정학회지, 24(5), 176-192.
4. 김영주 (2005). 미국 노인보호주택 거주자들의 '집'으로서의 속성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4), 66-77.
5. 김진욱 (2006). 한국 노인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나타난 노인의 일, 가족, 여가생활 분석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2, 150.
6. 이인수 (2000). 자유주제 7: 의존형 유료노인시설 거주지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국문화고찰을 중심으로. 2000년 한국노년학회 춘계학술대회, 95-110.
7. 정경희 외 (2005). 2004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8. 조성희·박수빈 (1998). 주택규모에 따른 아파트 평면계획의 다양화를 위한 거주자 주요요구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11), 153-164.
9. 통계개발원 (2009). 생활시간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대전: 통계청.

접수일(2011. 2. 18)
수정일(1차: 2011. 4. 25, 2차: 2011. 7. 7)
게재확정일(2011. 7. 8)